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영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다함께
	누가복음 24:13-35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유형선
	엠마오 그 길 위에서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4/12/26	4/19/26
최빅토리아	서경열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분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부활과 여자들의 눈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누가는 이 여자들의 이름을 10절에서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또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확인한 것은 예수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요셉이나 예수님의 시체를 제대로 장례하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한 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미 요셉이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따라서 더 이상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 아무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인간의 정성은 결국 정성을 보인 인간의 행위만 남을 뿐입니다.

여기서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고 질타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계셨던 곳에 머리와 발꿈치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구약의 속죄소(Mercy Seat)로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바쳐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임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은 단순히 연민의 정으로 슬퍼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 했으며, 완전히 죽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들과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무덤을 찾아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 이 모습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닙니까?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목상하고 있고, 어떻게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복된 소식은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살게 만듭니까?